

가고 싶은 섬 진도 관매도

‘시옷’ VOL 01



섬의 모든 것들을
나타내는 단
하나의 소리
시옷 -





섬의 모든 것을
나타내는 단
하나의 소리
시옷 -

섬에 대한 물음표를
지워드립니다!



Vol 01 관매도



LIFESTYLE

섬, 일상을 보여주세요

- 4 관매도 마을의 매력 3가지
- 6 건강을 키우는 관매도 3대 먹거리



PEOPLE

섬,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 8 그간 “어찌 사셨습니까”



TRAVEL

섬, 그곳을 알려주세요.

- 10 관매8경, 진실 혹은 거짓
- 14 관매도에 숨은 뷰 포인트
- 16 아일랜드를 위한 맞춤형 펜션



GWANMAEDO

진도 관매도

- 18 한눈에 보는 진도 관매도



NEWS & ISSUE

섬, 소식을 전해드려요

- 20 한눈에 보는 4월의 섬 소식



STORE

섬, 상품을 추천해 주세요.

- 22 순례자의 섬, 신안 기점·소악도
12개 작은 예배당, 미니어처





LIFE STYLE

섬, 일상을 보여주세요

관매도 마을의 매력 3가지



모래 바람 막아주는 관매도 숲숲

관매도에는 세 개의 마을이 있어요. 관매마을, 관호마을, 장산평마을인데요. 세 개의 마을은 각각 매력 한 가지씩을 갖고 있다고 해요. 솔숲과 해안, 그리고 들판이 각각의 매력 포인트입니다.

01

관매마을 앞 솔숲은 무슨 역할을 해?

관매마을 앞에 4600그루나 되는 소나무 숲이 있어요. 실제로 보면 더 어마어마한데요. 소나무 숲은 마을로 불어오는 모래바람을 막기 위해 마을 주민들이 직접 심었다고 해요. 삶의 지혜로 심고 가꾸어 온 소나무 숲이 300년이나 되었다니... 큰 덩치만큼 속은 더 짹짹 차 있답니다. 하늘을 가릴 만큼 큰 키다리 소나무, 소나무 사이로 나있는 오솔길, 그 사이사이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들로 짹짹 들어찬 솔숲은 또 다른 신선함을 물었다 줄 거예요.

02

초승달 등을 오르면 만나는 마을!

선착장에서 오른쪽, 관호마을로 가는 길은 뽕 뿜린 해변 길이에요. 해변길의 모양이 꼭 초승달을 닮았어요. 마을의 위치도 초승달 등에 딱 위치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관호마을을 만나러 가는 아일랜드는 초승달 등을 오르는데 셴이겠죠. 관호마을의 매력을 느끼는 한 가지 팁! 그것은 경사진 마을을 오르면서 1분에 한 번씩 뒤돌아 보는 거예요. 그때마다 바다를 배경으로 연분홍의 지붕들이 카메라 프레임에 새롭게 담겨 있을 거예요. 관호마을의 끝에는 지금까지는 전혀 다른 풍경을 카메라에 담을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올라가 보길 바랍니다. (사실 5분도 안 걸려요^^)



알록달록 관호마을 풍경



장산평 유채꽃

03

너른 들판에는 무엇이 자라나?

관매마을에서 조금 더 들어가면 작은 장산평마을이 있어요. 느껴지나요? 어떤 감성적인 기운이? 이름 그대로 장산평마을은 그 어디 내놓아도 뒤지지 않을 고즈넉함을 갖고 있습니다. 4월~5월에는 유채꽃, 9월~10월에는 메밀꽃이 너른 들판을 빼곡하게 채운답니다. 장관이라는 말이 좀 예스럽지만 이 단어 말고는 표현이 할 단어를 찾지 못했어요. 다른 단어 추천받아요! 꽃이 피는 시기가 해마다 차이가 있어요. 이유를 알아보니 주민 대부분 바다 일을 하는데 바다 일이 끝나고 꽃씨를 뿌려서 그렇다고 해요. 그 누가 머라고 하겠어요. 주민들의 삶인 것어요.

04

섬마을을 왜 걸어야 할까?

마을은 단순히 풍경만 보는 곳이 아닌 것 같아요. 풍경은 오래된 시간의 흔적을 담고 있어요. 마치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기라도 하듯 말이죠. 그 속에는 주민들의 이야기와 라이프스타일이 숨어 있어요. 여기에 섬마을을 천천히 걸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걸으면서 낯선 마을의 모습을 신선하게 그려내는 일, 여행자이자 아일랜드의 뒤흔어 아닐까 합니다.





LIFE STYLE

섬, 일상을 보여주세요



건강을 키우는 관매도 3대 먹거리

청정지역 관매도에서는 자연산 돌미역과 돌돔이 생산되고 있어요. 최근 바다가 오염되면서 해조류의 채취량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지만 아직 관매도의 바다는 어민들에게 보물들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이 보물들이 우리 밥상에 오르기까지 섬 주민들의 일상을 따라가 볼게요.



관매도 자연산 미역

01

차렷! 쫄쫄이 미역

“산모 미역은 접는게 아네요. 예로부터 산모 미역은 가위나 칼로 자르지 않는 오래된 전통이 있어요. 산모 미역에 쇠를 대면 몸에 안 좋다는 말이 있어서 우리 관매도에서는 산모 미역을 꼭 박스에 담아 드려요”

쫄쫄이 미역이 물으로 올라오기까지

관매도 자연산 돌미역은 최고의 특산품으로 꼽히는 것 중 하나인데요. 이 자연산 돌미역은 거센 파도를 지탱하기 위해서 미역 잎사귀가 날씬하게 자란다고 해서 쫄쫄이 미역이라고 불려요. 특히 한 줄기 한 줄기 곧게 펴서 반듯하게 말린 쫄쫄이 미역은 산모들에게 출산 선물 1순위로 꼽힙니다. 부드러우면서도 오독오독한 식감이 Good!! 끓이면 끓일수록 쫄쫄이 국물이 우러나는 것이 이 미역의 특징!! 관매도 쫄쫄이 미역은 7월에서 8월, 바닷물이 많이 들고 나는 사리 물때에 맞춰 채취하는데요. 바위에 붙어 있는 돌미역을 주민들은 온몸으로 파도를 맞고 미끄러운 바위 사이를 건너다니며 낚으로 미역을 베어 채취해요. 힘들고 위험하게 채취한 귀한 미역인 만큼 몸값도 만만치 않다고 해요. 1 묶(20가닥) 가격이 20만 원이 넘는다고 해요.

채취한 미역은 어떤 과정으로 상품이 되나요?

쫄쫄이 미역은 예쁘고 튼튼하게 모양을 잡아서 일일이 곁에 가닥을 펴서 말려요. 여름이 되면 돌미역을 말리느라 노는 땅이 없을 정도예요. 짹짹하게 내리쬐는 햇볕에서 좋은 품질의 미역이 생산된답니다. 이렇게 생산된 쫄쫄이 미역은 현지 특산품 판매장에서 구매가 가능해요. 워낙 인기 품목이라 금방 팔린다고 하니 7월 전에 사전 예약은 필수겠죠?

02

진시항도 울고 갈 관매도 불로초

불로장생을 꿈꾸던 진시항도 몰랐던 바다의 불로초. 톳 인데요. 관매도의 여름은 돌미역과 함께 톳을 말리느라 마치 검은 웅단을 깔아 놓은 듯합니다. 4월부터 마을 곳곳에 톳을 말리기 시작해서 관매도를 톳이 점령하는 장관? 을 볼 수 있습니다.

톳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나

톳은 조류가 센 바다에서 자라야 깊은 맛을 내는데요. 관매도에서는 톳 종자를 이식해 4월부터 일일이 낚으로 베는 방식으로 채취하고 있어요. 돌미역과 마찬가지로 손작업으로 채취하기 때문에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수확한 톳은 햇볕에 잘 말려 우리 밥상에 톳무침, 톳 칼국수, 톳 밥과 같은 요리로 오른답니다. 특히나 톳은 철분과 칼슘이 풍부해 수출을 많이 하는데 일본에서는 영양 음식으로 인기가 많답니다. 바다에서 나온 톳이 또 바다 건너 일본까지 가네요.



관매도 해풍썩

03

썩이 관매도 대표 작물이 된 이유

매년 1월~3월, 가장 바쁜 시기 중 하나예요. 해풍을 맞고 썩썩 자라는 썩이 제철이기 때문이에요. 피를 맑게 해주며 칼슘, 철분, 무기질, 비타민 등의 영양소가 풍부한 썩은 효소나 막걸리로 만들어져 관매도에 요긴한 수입원이 되고 있습니다.

환경의 변화는 우리에게 매번 새로운 과제를 제시하는 듯해요. 그리고 그 과제에 우리는 힘들지만 자연스럽게 적응을 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죠. 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빠르게 고령화 되어가는 변화 속에서 관매도 주민들은 여유로워 보이지만 치열하게 변화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썩을 대표 작물로 키운 것처럼요.

관매도 여행의 화룡점정 썩 막걸리

“썩 막걸리를 만들려면 먼저 썩을 깨끗이 다듬어서 찹쌀 물에 한 여덟 시간 불려야제. 그래갓고 하얀 물이 안나올 때까지 씻어서 한 시간가량 물을 빼주고, 찹쌀에 썩을 섞어서 침술에서 삼십분가량 찌주면 꼭 비빔밥처럼 되는데 썩 향이 얼마나 진한가 모르제. 거그다 누룩이랑 섞어서 발효가 되면 막걸리 되제라” 여행에서 지역 전통술을 맛보는 것은 여행의 마침표가 아닐까요?



PEOPLE

섬,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가고 싶은 섬’ 진도 관매도를 지금까지 잘 가꾸어 온 주민들이 있어요. 섬을 위해서 애쓰신 덕분에 아일랜드들이 조금이나마 섬을 편하게 접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준비했어요. 섬을 지켜내고 가꾸어 온 주민들의 이야기를요. 몇 개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는 주민들의 마음이 오롯이 담겨있었습니다.



그간 어찌 사셨습니까

01

어찌 사셨습니까

“힘들었소” 코로나는 섬에도 영향이 주었다. 유채꽃이 피는 이 시기에는 그래도 관매도를 찾는 관광객이 있었는데 지난해에 비해 10%도 섬을 찾지 않는 것 같다. 힘도 들고 걱정이다. 가끔씩 찾아오는 관광객들은 괜히 미안해서, 주민들은 코로나19가 불러온 경계심으로 서로서로 눈치를 보는 게 신경이 쓰인다. 노인이 많다 보니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마을을, 마을기업을 이끌고 있는 이장으로 신경이 쓰이는 것은 사실이다.

02

관매도는 나에게 어떤 섬인가

고향인 관매도로 귀어 한지 10년이 넘었다. 다른 무슨 말이 필요하겠나. 고향이라는 편안함과 안도감이 나를 늘 지탱해 준다. 세월호 사고 이전에는 관매도에 관광객이 넘쳐났다. 소위 말해 관광객이 발에 치일 정도였다. 지금은 180도 상황이 바뀌었다. 누구를 탓하고 원망하겠는가. 그저 내가 좋아하는 섬을 묵묵히 지켜갈 뿐이다.

03

이장을 맡고 있다고 들었다

책임감과 부담감이 동시에 작용하는 일이다. 마을 공동체의 기본은 믿음과 투명성이라고 생각한다. 이장으로서 믿음과 투명성은 철칙으로 삼고 일하고 있다. 마을 소일거리는 공정하게 나누고 펜션을 찾는 관광객의 일지를 꼼꼼히 기록하고 마을에 공유한다. 그래서 주민들이 믿음을 가지고 나를 믿어주는 편이다. 늘 감사하다.

04

10년간 섬에는 어떤 변화들이 있었나

요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가 지구온난화이다. 그것을 몸소 경험하고 있다. 해수 온도가 10년 전에 비해 많이 올라간 것은 자연산 미역 수확량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 생산량이 3분의 1로 줄었다. 10년 전만 해도 가구당 미역을 10뿔(20가닥이 1뿔)씩 분배해서 나눠가졌지만 지금은 3뿔도 안된다. 미역이 잘 자라려면 해수 온도가 일정해야 하는데 온난화로 해수 온도의 변화가 심해진 것이 이유라고 생각된다. 앞으로 어떤 변화가 더 발생할지 두고 볼 일이다.

05

8경을 제외하고 추천하고 싶은 곳이 있다면

3곳 정도 추천해 주고 싶다. 관매도의 채석강 해식동굴, 독립문 바위,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후박나무가 그 3곳이다. 요즘 사진 잘 찍어서 SNS에서 올리는 것이 유행이라고 들었다. 추천한 3곳이 대충 찍어도 사진이 잘 나온다. 단점이라면 해식동굴은 3km나 되는 관매도 해변을 걸어야 하고 독립문 바위는 길이 험해서 조심해야 한다. 뭐든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지 않은가!

06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에 대해 들려줄 이야기가 있다면

관매도는 사업 첫해에 선정이 되었다. 이장이라는 책임감 때문일까? 주민과 마을을 위한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항상 가지고 있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는 관광 인프라 사업의 비중이 커서 마을을 위한 일에는 제약이 있었던 것 같다. 몇 번이고 요청해서 마을에 필요한 시설들을 설치했지만 처음에는 쉽지 않았다.

07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에 대하여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섬의 인구는 줄고 고령화 되어가고 있는 섬 상황에서 관광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관광에만 한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주민들이 편하고 잘 살아야 관광객들도 편하게 관광할 수 있지 않겠는가. 관매도는 이제 사업을 마무리하지만 다른 섬은 살고 싶고, 가고 싶고, 지속 가능한 섬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

08

전라남도 섬 코디네이터 교육도 받고 있다고 들었다 어떤 섬 코디네이터가 되고 싶은가

1박 2일이 방송으로 나간 후 관매도는 유명한 섬이 되었지만 이제는 시대가 바뀌고 관매도도 모르는 사람이 많다. 어떤 루트로든 관매도를 방문한 관광객에게 도움이 되는 섬 코디네이터가 되고 싶다. 처음 오면 모든 것이 낯설다. 길도 모르고, 무엇이 있는지도 모른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이나마 해소 시켜주고 싶다. 관매도에 내리면 선착장에 특산물 판매장이 있다. 그곳에 내가 있으니 언제나 들려서 물어봐도 좋다. 성심성의껏 알려주도록 노력하겠다.



TRAVEL

섬, 그곳을 알려주세요.



관매 8경, 진실 혹은 거짓

대표 관광지를 이야기하면 왜 우리나라는 8경일까요? 관매도 역시 관매 8경이라 이름 짓고 관매도를 찾은 아일랜드어에게 손짓을 합니다. 관매 8경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진실 혹은 거짓 그 경계에서 관매 8경을 만나 보았습니다.

01

관매도 해수욕장은 (활주로)로 사용했다!

지금은 항공법의 개정으로 불가능하지만 2013년 9월, 경비행기가 관매도 해수욕장을 활주로로 사용해서 실제로 착륙했다고 합니다. 또 착륙을 하려면 북서풍의 영향으로 모래가 쌓이지 않는 여름철에만 가능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착륙이 가능해?

‘떡모래’라고 불리는 모래 때문이라고 해요. 관매도 해수욕장 모래는 거무스름한 색을 띠고 모래가 가늘면서 단단해서 떡모래라고 이름 붙였다고 하는데요. 이런 떡모래 특성 때문에 착륙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물놀이하기에는 어때요?

관매도 해수욕장은 물도 깨끗한 데다 다른 모래해변처럼 ‘폭폭’하고 발이 빠지지 않아 물놀이하기에는 더 좋아요. 게다가 경사도 완만하고 물이 빠지면 1km 이상 해변이 드러나니 가족여행으로 또 한적한 해안을 찾는 아일랜드어에게 딱 맞는 섬이에요.



1경 관매도 해변(공슬해변)

출처 'LSA Flying Club'

02

방아섬의 실제 주인공은 (남근바위)이다!

관매도에 딸린 작은 섬, 방아섬은 선녀가 내려와 방아를 찼었다는 전설이 있지만 실제 주인공은 따로 있어요. 바로 남근바위입니다. 방아섬 정상에는 남자의 상징?처럼 생긴 바위가 하나 있는데요. 모양은 상상하기 나름이네요^^

남근바위가 왜 주인공이야?

큰 파도에 바위가 움직이는 것 같아 무섭기도 하고 바위의 모양 탓이기도 한데요. 모양 탓에 방아섬 앞에 있는 하조도 신전마을 처녀들이 부엌에서 밥을 짓다가 무심코 고개를 들어 방아섬을 보게 되면 얼굴을 붉히며 숨어버렸다고 해요. 요즘 말하면 바바리맨 같이 느껴졌을까요?^^ 방아섬은 물이 빠질 시간에 맞춰 가야 쉽게 갈 수 있으니 출발 전 물 때 확인은 필수랍니다.



2경 방아섬



2경 방아섬

03

공주가 떨어뜨린 공깃돌!

관호마을 뒤편 해안가에 덩그러니 놓인 지름 4~5m 정도의 동그란 공돌과 그 공돌 바로 앞에는 왕릉을 축소해 놓은 듯 보이는 작은 돌묘가 있어요.

공돌은 하늘나라 옥황상제가 아끼던 공깃돌이라고 합니다. 하루는 공주가 공깃돌을 가지고 놀다가 실수로 관매도로 떨어뜨리고 말았는데요. 옥황상제는 그 즉시 하늘장사에게 공깃돌을 가지고 오라고 명하였어요. 관매도로 내려온 하늘장사는 예쁜 관매도 풍경에 빠져 그만 하늘나라로 돌아갈 생각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답니다. 단단히 화가 난 옥황상제는 공깃돌 옆에 하늘장사를 묻고 돌묘로 만들어 버렸다는 이야기예요.

공돌에는 사진 찍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공돌을 한 바퀴 돌아보면 선명하게 찍힌 커다란 손바닥 자국이 있는데요. 손바닥 자국에 손을 맞대고 있는 힘껏 밀 듯 사진을 찍는 게 포인트예요.



3경 돌묘와 공돌



3경 돌묘와 공돌



4경 할미중드랭이굴



5경 하늘다리

04

할미중드랭이굴에는 (도깨비)가 산다!

배로만 볼 수 있는 할미중드랭이굴이 왜 관매 8경 중 하나인지 조금은 이해하기 힘들지만 그렇다고 하니 배를 타고 가보았어요.

바위에 부딪힐 걱정 때문에 굴 가까이 가서 보지는 못했지만 멀리서 봐도 독특한 이름만큼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았는데요. 이 굴은 비 오는 날이면 할미 도깨비가 나온다는 전설이 있다고 해요. 도깨비가 장난을 치는 건지 산소가 부족해서 그런 건지 햇불을 들고 들어가면 저절로 불이 꺼지고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혹시나 배를 빌려 가시는 분들은 도깨비 조심하시길!!

05

하늘다리는 선녀가 (번지점프) 하는 곳이다!

하늘다리는 파도에 의해 갈라진 50m 높이, 3m 간격으로 나란히 서 있는 바위섬을 연결한 다리에요. 하늘다리 위에서 바다로 돌을 던지면 바닷물에 닿는 시간이 13초나 걸린다고 해요. 그만큼의 높이와 시간이니 충분히 선녀들이 번지점프를 할 수 있었겠죠?^^

하늘다리는 무엇을 연결해 주는 다리일까?

문득 이런 물음표가 던져졌어요. 아마도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하늘과 사람의 마음을 연결해 주는 건 아닐까요? 요즘처럼 마음이 답답하고 우울한 기분이 들 때 하늘다리에 올라 아일랜드들의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6경 서들바굴 폭포



06

서들바굴 폭포의 물을 맞으면 (피부병)이 낫는다.

서들바굴 폭포 역시 걸어서는 못 가는 곳이니 참고하십시오. 서들바굴 폭포수의 물을 맞으면 피부병이 낫다는 전설이 있어요. 실제로 맞아볼 수 없으니 사실 확인은 어려웠어요. 이야기는 전염병에 걸린 소녀에서 시작해요. 전염병에 걸린 소녀가 마을에서 쫓겨날 것이 두려워 집에만 숨어 지냈다고 해요. 폭포수 이야기를 전해 들은 소녀는 밤마다 몰래 나와 폭포수를 맞으며 피부병을 치료했어요. 마지막 한 번만 더 맞으면 완치를 할 수 있었는데 숨어서 지켜보던 소년에게 들키버리고 말았어요. 이 사실이 마을에 알려지면 부모님까지 무사하지 못할 거란 생각에 소녀는 바다에 뛰어들어 죽고 말았어요. 소녀가 그렇게 죽자 자책감에 몹시 괴로워하던 소년 역시 소녀를 따라 바다에 빠져 죽었다고 합니다. 사실 그 소년은 소녀를 좋아해서 지켜주려고 숨어 있었던 것인데... 역시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07

다리여는 온전히 나에게 (집중) 할 수 있는 곳이다!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에서 잃어버렸던 자신을 찾는 데 집중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관매도에 집중하기 딱 좋은 장소 한곳을 알려드릴게요. 다리여라는 곳이에요. “앞도 뒤도 온통 바다인 삶이라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지 않는다면 세상은 온통 바다제라” 마을 한 어르신 말씀이에요.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이 다리여에 와서 바다를 바라보셨다고 해요. 그러면 속이 시원하게 뽕 뚫리면서 마음이 가라앉았고 기분이 한결 좋아졌다고 합니다. 다리여는 한 달에 4~5회 정도 바닷물이 빠졌을 때 걸어서 갈 수 있다고 하니. 물 때 확인 필수!

08

벼락바위에는 (벼락)이 친다!

전설의 엔딩은 왜 하나같이 새드엔딩일까요? 벼락바위 전설도 금기를 깬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벼락바위는 당제를 지내는 신성한 곳이었어요. 당제의 제주로 추대된 된 청년은 마음을 청결히 하고 처녀 만나는 걸 금기해야 했는데요. 사랑이 그렇게 쉬웠을까요? 결국 금기를 깨고 처녀를 만나다 하늘에서 폭우가 내리고 벼락이 쳐서 죽고 말았다고 해요. 벼락을 맞아 산은 깎아지른 절벽처럼 되어 주민들은 이곳을 벼락바위 혹은 하늘담이라고 불렀고 청년과 처녀가 죽어서 다리여의 쌍구렁이 바위가 되었다고 전해져요. 벼락바위에 오르다면 다들 벼락 조심하시길!!



7경 다리여



8경 벼락바위



TRAVEL

섬, 그곳을 알려주세요.

관매도 숨은 뷰 포인트

‘셋바람’은 어디서 부는 바람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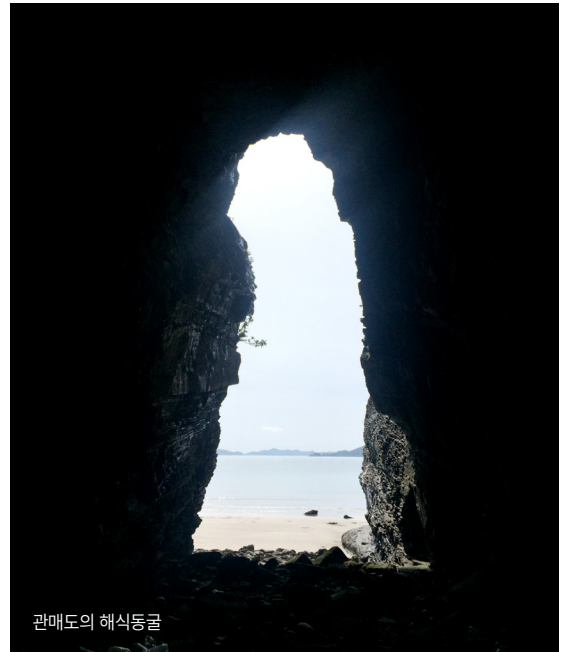
‘셋바람’은 동쪽에서 부는 바람을 말해요. 특히 뱃사람, 섬 주민들이 주로 쓰던 말인데요. 재미있는 건 농부들은 ‘동부새’로 사용했다고 해요. 왜 갑자기 ‘셋바람’이냐고요? 관매도 숨은 뷰 포인트와 관련이 있어서예요.

아일랜드가 찾아가야 할 숨은 뷰 포인트 이름은 ‘셋배’라는 곳이에요. ‘셋바람’에서 유래되어 지어진 이름인데요. 위치도 관매도 동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장산평마을 앞 뻥뻥하게 피어있는 유채꽃을 친구 삼아 걸으면 ‘셋배’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요. 동쪽이니까 당연히 바다 위로 떠오르는 해도 볼 수 있겠죠? 다시 말해 관매도는 일출과 일몰을 모두 볼 수 있는 섬이에요!

‘셋배’가 특별한 이유는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작은 항이 있어서예요.

바다에 가장 가까이 맞닿아 있는 항구는 오롯이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장소가 되어줍니다. 더 알려지기 전에 아일랜드 더 모두 서둘러요!





관매도의 해식동굴

관매도에도 채석강이 있다?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반도에 있는 채석강 잘 아실 거예요. 관매도에도 채석강 버금가는 해식동굴들이 있습니다. 이곳은 정말空空 숨겨져 있는데요. 이곳을 가려면 3km나 되는 관매도 해변을 걸어야 해요. 워낙 깨끗하고 모래가 단단해서 걸기에는 딱입니다.

섬은 언제나 물때를 잘 맞춰야 해요. 이곳 역시 물이 빠져야 갈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관매도 해변 끝에서 살짝만 더 들어가면 해식동굴 여러 개가 숨어져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해식동굴 하나씩 고르고 인생 샷 남기면 끝! 채석강처럼 막 줄 서서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몇 가지 알아 두어야 할 내용이 있어요. 채석강처럼 정비가 되어 있지 않은 날것의 해식동굴이라 미끄러운 바위에 조심해야 해요. 파도에 밀려온 해양 쓰레기가 군데군데 쌓여 있어 살짝 피해서 사진도 찍어야 해요. 대신 막 찍어도 예쁜 사진을 건질 수 있으니 걱정은 불들어 매시고!!



TRAVEL

섬, 그곳을 알려주세요.

아일랜드를 위한 맞춤형 펜션

문의 010-6822-8498



코로나19가 걱정인데 독채펜션이 있나요?

코로나19는 여행객의 잠자리 트렌드도 바꾸어 버렸죠. 외부와 단절된 독립된 공간을 원하는 여행객이 늘면서 독채 펜션의 인기가 좋다고 하는데요. 관매도도 트렌드에 맞춘? 독채 펜션이 있습니다.

섬 펜션이라는 이름의 독채 펜션인데요. 사실 과거 선생님들의 숙식 공간이었던 관사를 리모델링해서 조성한 펜션입니다. 지금은 폐교가 된 관매 초등학교와 조도중학교 관매 분교 옆으로 길 하나를 두고 앉아 있는 6동의 관사를 재사용하였습니다.

「가고 싶은 섬」 기본 계획 수립 과정에서 폐교로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학교 관사 건물에 대한 활용방안이 처음으로 논의되었고 지금의 모습이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연식은 오래되었지만 내구성은 아주 좋아요! 청결이나 위생에서 점수를 준다면 5점 만점에 4점은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6동의 관사는 일반적인 방식인 '호'로 붙이지 않고 '경'이라 하였는데 이는 관매 8경에서 따왔다고 해요. 1경부터 5경까지는 독립된 독채이며 6경~8경은 2인실로 동일한 건물에 함께 모여 있어요. 각각의 독채 펜션마다 크기와 수용 가능 인원이 다르니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분	가격	수용인원	편의시설
1경, 4경, 5경	8만 원	4명	화장실, 인덕션, TV, 냉장고,
2경, 3경	15만 원	8명	드라이기, 전자레인지, 식기류
6경, 7경, 8경	6만 원	2명	화장실, TV, 냉장고, 드라이기

바다 보였으면 좋겠는데 오션뷰 펜션이 있을까요?

바다에 왔으면 오션뷰죠! 관호마을 입구, 바다와 마주한 하늘다리 펜션을 소개 드려요. 창문 너머 바다가 바로 보이는 오션뷰 펜션입니다. 관매 8경 중 5경인 하늘다리를 따라 하늘다리 펜션이라고 이름 지었어요. 딱딱딱한 2층짜리 신축 펜션이에요. 2층에는 아일랜드가 잠을 잘 수 있도록 4개의 방이 마련되어 있어요. 1층에는 식당과 카페가 예쁜 모습으로만 있어요.



문의 061-544-7729

예쁜 모습으로만 있는 이유는?

섬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관련이 있어요. 고령화, 인구수 감소, 인력 부족 등의 문제는 하늘다리 펜션에도 작용해 예쁜 모습으로만 남아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하늘다리 펜션 경영 컨설팅이 전문가의 도움으로 진행하고 있으니 올해 성수기에는 정상 운영이 예상되고 있어요. 그래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4개의 방이 부엌이 딸린 원룸 구조라서 음식을 해 먹을 수 있습니다.

구분	가격	수용인원	편의시설
1호실	12만 원	6명	화장실, 인덕션, TV, 냉장고,
2호실, 3호실	10만 원	5명	드라이기, 전자레인지,
4호실	8만 원	4명	전기포트, 식기류

위에서 소개 드린 두 개의 펜션 외 관매도에는 대부분이 민박과 식당을 겸하고 있어 숙식을 한 번에 해결 가능하다고 해요. 그때그때 잡히는 활어나 해산물에 따라 상이 달라진다고 하니 본인의 운을 관매도 밥상에 맡겨 봐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한눈에 보는 관매도



서울~진도항

서울·서해안고속도로·목포IC·진도항(진도군 임회면)

부산~진도항

부산·남해고속도로·강진무위사IC·진도항(진도군 임회면)



새섬두레호(차도선)

구간	출발시간	요금	소요
진도항·관매도	12:10	11,000원	80분
관매도·진도항	13:30		



한림페리호(차도선)

구간	출발시간	요금	소요
진도항·관매도	09:50	13,000원	120분
관매도·진도항	14:20	13,000원	

벼락바위(하늘담)

다리여

서들바굴쪽

진도항 061.544.5353 관매항 061.542.3492

*상기 시간은 기상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NEWS & ISSUE

섬, 소식을 전해드려요

한 눈에 보는 4월의 섬 소식

SOME Times Newsletter 재개

안녕하세요. 전라남도 섬발전지원센터장 김충남입니다.

전라남도는 「가고 싶은 섬」의 이슈와 현황을 알리고, 전남 섬에 대한 다양한 정보 전달을 위해 작년 하반기 잠시 중단되었던 섬 소식지 SOME Times Newsletter를 매월 2회 발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섬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1년 국제 청년 섬 워크캠프 운영단체 선정

2021년 국제 청년 섬 워크캠프를 운영할 단체가 최종 선정되었다.

국제 청년 섬 워크캠프는 국내 체류 중인 다국적 청년들이 모여 자원봉사캠프를 운영하는데, 해안정화 캠페인, 마을경관 정비, 재능기부활동 등이 주요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주제별로 6회 이상 「가고 싶은 섬」에서 워크캠프가 진행된다.

운영단체 국제워크캠프기구

사업기간 2021. 4. 1. ~ 2021. 12. 31.

2021년 섬코디네이터 양성교육 개강식 개최

섬 주민의 삶과 지혜가 담긴 명소와 먹거리 등을 생생하게 알리고, 바람직한 여행 문화를 유도해 섬을 가꾸고 보호하는 섬 지킴이 역할을 하는 섬코디네이터!

지난 3월 3일 섬코디네이터 개강식을 시작으로, 2021년 섬코디네이터 교육이 시작되었다. 매주 영상을 통해 온라인 공통 교육을 진행하고, 기본, 보수 과정을 거쳐 섬코디네이터 자격이 주어진다. 기존 섬코디네이터 분들은 매년 10시간의 보수교육을 받게 된다.

교육문의 전라남도 섬발전지원센터(061-286-4083)



한국섬진흥원 유치, 전남 목포시로 단일화

신안군 3월 24일 한국섬진흥원 유치 철회하고 목포시에 양보했다. 신안군은 “설립될 한국섬진흥원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섬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야 할 것” 이라면서 “남아있는 공모 과정 또한 섬 발전을 위한 혁신적인 섬 정책의 공론장이 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목포시는 “섬의 관문에 위치한 목포시는 우리 지역의 획기적 발전의 계기가 될 한국섬진흥원 유치에 총력을 다하고, 신안군을 비롯한 서남권 인근 지자체와 협력해 상생 발전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로써 전남에서 한국섬진흥원 유치 후보지가 단일화되면서 목포시의 유치 명분은 더욱 힘을 얻게 되었다.

한국섬진흥원 설립지역 결정 4월

2021년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상반기 ‘주민대학’ 스타트

지난 3월 9일, 손죽도를 시작으로 2021년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상반기 ‘주민대학’이 시작되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소규모로 진행하였다. 마스크를 뒤로 얼핏 보이는 주민들의 진지한 표정에서 「가고 싶은 섬」 가꾸기에 대한 열의가 그대로 느껴졌다.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주민대학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이다.

여수 손죽도 ‘마을 정원 경관 디자인 / 김태완 연안디자인연구소장

손죽도 맞춤 생태 친화 정원 관리 / 모세한 지역공동체활성화 센터장

보성 장도 ‘마을공동체 법인운영’ / 김대용 전남사회적경제연소장

‘해양쓰레기 활용방안’ / 도정희, 박삼관 연흥공방작가





STORE

섬, 상품을 추천해 주세요.

가고 싶은 섬 신안 기점·소악도

순례자의 섬, 그리고 순례자의 집

신안 기점·소악도

12사도 이름을 딴 건축미술 작품이

작고 예쁜 미니어처로 다시 태어났어요.



건강의 집 ● 베드로



생각의 집 ● 안드레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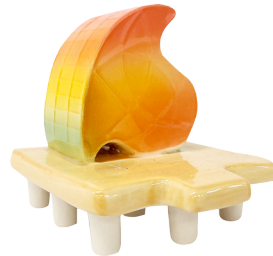
그리움의 집 ● 야고보



생명평화의 집 ● 요한



행복의 집 ● 필립



감사의 집 ● 바르톨로메오



기점·소악도「가고 싶은 섬」협동조합이 직접 판매하고 있어요.
도자기로 만들어진 미니어처는 충격에 약하고 파손 우려가 있어요.
때문에 택배 발송이 어려워 현장에서만 구매 가능하다고 하니 이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개당 1만 원, 12개 세트 10만 원

판매장소 기점·소악도 1004센터

문의 061-246-1245



연인의 집 ● 토마스



기쁨의 집 ● 마태오



소원의 집 ● 작은 야고보



칭찬의 집 ● 유다타대오



사랑의 집 ● 시몬



지혜의 집 ● 가롯유다





전라남도 섬발전지원센터